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중국어 서비스 및 교육

김 중 섭
(제주대학교)

Kim, Joong-sub. 2004. *The Chinese Service and Education in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Language Teaching and Research 1(1), 51-63.*

Facing a rapidly changing world economy, there is a growing need for a new development strategy in the 21st century. In this context, The Korean government decided to develop Jeju Island into a "Free International City"(JFIC). China is right next to Jeju Island, and is treated as a forth coming economic superpower. So it's important for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to attract more Chinese people to visit and make investment. For this, Jeju should offer some key service with Chinese language. And a more effective foreign language education system is also urgently required. (Cheju National University)

1. 서론

1991년 정부는 <제주도개발특별법>을 통과시켰고 이를 토대로 계속해서 <제주도종합개발계획>(1994), <제주도종합개발계획보충계획>(1997), <제주도경제발전5개년계획>(1999)을 제정하여 제주지역 경제발전수준의 향상을 도모하였다.

이 기간동안, 국내·국제 경제환경에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가 종료되고 세계경제가 WTO체제로 진입, 1997-98년의 아시아금융 위기 등의 영향으로 세계경제는 "글로벌화", "정보화", "지식화"등의 추세로 변화해 나가고 있어 정부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¹⁾

이를 감안하여 정부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여기고, "국민의 정부"가 출범할 때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구상을 제안하였다. 외국컨설팅 회사의 조사 및 연구를 거쳐 시행가치를 인정받고 검증을 받은 후,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2000년에는 <제주도개발특별법>을

제자유도시특별법》으로 수정하여, 2002년 4월 1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정식
으로 출범하였다.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건설 목표는 제주도민을 주체로 자연자원과 향토문
화를 보존하며 지식기반 산업을 육성함과 동시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
고 제주도민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켜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 공헌하는 것이다.
이 목적 달성을 위해 “인간중심”의 발전전략 이외에도 개방화, 국제화의 전략
에 더욱 치중해야 할 것이다.

제주는 중국, 일본, 동남아 지역을 잇는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지리적 위치
가 우월하고 좋은 국제화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인 이점을 적극
적으로 활용하고 제주를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한 급선무
는 바로 국제화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제주도는 지리적으로 동북아에 위치하고 있어 국제무대로 나가는 첫 번째
관문은 인접국가인 중국과 일본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경제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중국은 제주의 국제화에 가장 중요한
협력파트너이다. 《기본계획》의 제주발전 잠재력 분석에서, 제주에서 비행거
리 2시간의 범위 내에 인구가 1000만명 이상인 도시는 5곳, 500만 이상인 도
시는 13곳이 있는데, 이 18개 도시 중 15개가 중국에 있다고 지적했다.²⁾ 그러
므로 중국은 제주 미래발전에 얼마나 중요한 국가인지를 알 수 있다.

따라서, 다음은 먼저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발전전망과 중국의 관계를 분석하
고 현재의 중국어 교육 및 관련 정책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2.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관광산업과 중국

2.1. 제주 관광산업의 현황과 전망

제주는 지금까지 관광지로 유명한 곳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계획에서
정부는 시설과 제도개선을 통해 제주도를 홍콩이나 싱가포르와 차별화 되는 특
색있는 관광, 금융센터로 개발할 것이라고 공포하여 제주의 관광산업은 여전
히 그 중요한 위치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2000년 제주에 온 관광객 총수는 411만명으로 그 중 내국인이 382만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국인은 29만명으로 제주가 아직도 내국인 중심의 관광지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외국관광객 중에서도 아시아지역에서 온 사람이 90%이상을 차지하고 유럽·미주지역에서 온 관광객은 5%에 불과하여 특정지역에 편중된 현상을 보여준다.

관광객 1인당 평균소비액을 보면, 1999년에는 442,127원으로 그 중 내국인 관광객 1인당 평균소비액은 327,556원, 외국인 일인당 평균 소비액은 2,176,560원이다. 외국인 국적별 소비형태를 보면 일인당 평균소비액이나 총액 모두 일본인 관광객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³⁾

《표 1》 국가별 관광객 소비액

(1999년, 백만원/인)

구 분	일 본	중 국	영 어 권
판 매	103,086.6	19,997.6	374.9
음식, 숙박	99,153.2	22,566.6	2,410.1
운송, 물류	17,079.3	6,429.5	753.2
기타 서비스	215,885.8	13,484.9	528.0
합 계	435,204.9	62,478.6	4,066.2
인 수	141,267	80,363	8,891

이런 소비 행위가 제주에 가져다주는 소득효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관광객 소비지출이 가져온 총소득효과

(1999년, 백만원)

구 분	일 본		중 국		영 어 권	
	총소득효과	일인당	총소득효과	일인당	총소득효과	일인당
판 매	91,307.8	0.646	17,712.6	0.220	332.1	0.037
음식, 숙박	133,824.3	0.947	30,457.5	0.379	3,252.9	0.366
운송, 물류	8,408.8	0.060	3,165.5	0.039	370.8	0.042
기타 서비스	180,636.8	1.279	11,283.1	0.140	441.8	0.050
합 계	414,177.6	2.932	62,618.8	0.779	4,397.6	0.495

이상의 수치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제주 관광산업의 주요 외국 고객은 일본인이고, 관광 소비지출은 소득 효과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즉, 일본인 관광객은 1인당 2,176,560원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과거 20년 동안의 발전 추세와 현재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향후 10년 내 제주방문 관광객 수는 각각 다음과 같이 예상된다: 내국인은 매년 평균 507만 7천명, 외국인 35만3천명, 그 중 일본관광객은 22만9천명, 중국관광객은 7만5천명, 영어권국가는 1만1천명, 그리고 기타 국가 관광객은 3만8천명이다.

《표 3》 국가별 관광객수 예측

연도	내국인	외국인					합계
		일본	영어권	중국	기타	합계	
2006	5,149	232	11	76	39	358	5,507
2011	6,131	276	13	91	46	426	6,557
平均	5,077	229	11	75	38	353	5,430

《제주국제자유도시발전계획안》에서는 2010년 관광객 목표수치를 내국인 관광객 840만명, 외국인 관광객 100만명으로 정했다.⁴⁾

《표 4》 2011년 제주관광산업 목표치

예 측 치	· 내국인관광객 · 관광수입 · 외국인관광객 · 관광객총수	613만1천명 2조5,090억원 42만6천명 655만7천명
목 표 치	· 내국인관광객 · 관광수입 · 외국인관광객 · 관광객총수	885만8천명 3조6,172억원 107만1천명 992만9천명

그 중 외국인관광객의 성장 목표는 2배 이상이므로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중국인관광객 유치가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제주의 외국인 관광객 중 아시아지역 관광객이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일본관광객의 증가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외국인 관광객 2배 이상의 성장 목표를 달성하려면 반드시 중국관광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2.2. 중국인 관광객과 제주

한국방문 중국인 관광객 수는 1998년 1만5천명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7%이었지만 2000년에 이르러 5만7천명으로 19.9%를 차지해 가장 빠른 성장을 보여 주었다. 또 한국관광공사의 통계에 따르면, 1999년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중 12.4%가 제주를 방문했다고 하는 반면, 중국인 관광객 중에서는 34.4%가 제주를 방문해 중국관광객이 제주에 비교적 큰 흥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⁵⁾

중국은 현재 연평균 7%이상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음과 동시에, 정부도 점차적으로 국민의 해외여행 제한을 완화시키고 있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각광받는 여행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런 기대에 힘입어 중국어를 배워 중국을 이해하려는 열풍이 전국 각지에 불고 있는데, 제주도도 당연히 예외가 아니다.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 《종합계획》에서 기존 관광지의 정돈, 새로운 관광시설의 개발·건설, 관광산업의 육성, 관광시장 확장 등 많은 개발 계획을 세웠는데, 그중 중국관광객과 관련된 몇 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다.

2.2.1. 대형쇼핑몰(쇼핑아웃렛)

《종합계획》중에 특별히 “중국관광객과 내,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수요에 맞추어 간선도로 옆쪽에 대형쇼핑몰을 건설한다”고 언급했다. 내용 중에서 특히 “중국관광객”을 지명하고 있어 중국관광객의 잠재소비능력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실, 홍콩, 싱가포르 같은 관광도시에서는 쇼핑수입이 관광수입의 6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원래 이 두 도시를 벤치마킹한 이상 쇼핑장소를 늘리는 일은 당연한 일이다.⁶⁾

2.2.2. 휴양·요양시설

제주의 온화한 기후를 이용하여, 휴양·요양시설(실버타운, silver town)을 개발하고 중국, 일본, 한국 등 주변국가의 노인, 퇴직자들을 유치할 계획이다.⁷⁾

5)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p.451.

2.2.3. 관광카지노

제주에는 지금 8개의 관광카지노가 있지만 가동률은 겨우 1.8%로 국내 최저수준이다. 고객 중에 50%이상은 일본인이며 영업수입의 90%이상이 일본인에 의한 것이다. 현재 중국인 관광객이 이미 세계각지의 유명한 카지노를 누비고 돌아다니는 상황이므로 관광카지노의 적절한 개발은 더 많은 중국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다.⁸⁾

2.2.4. 국제회의 산업

세계가 지식경제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사람들은 더욱 다양화된 정보지식을 얻고 상호간의 연계를 강화하려 할 것이며 이에 따라 향후 국제회의나 전시회, 박람회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2002년 완공된 제주컨벤션센터는 3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회의실과 기타 관련휴양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규모 국제행사를 유치하는데 좋은 조건을 가지게 되었다.⁹⁾

2.3. 현재 당면한 문제

위의 계획을 추진함과 동시에 《종합계획》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몇 가지 문제를 제시하였다.

2.3.1. 국제화수준 부족

“종합계획”에서는 제주도가 비록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표방하고 있지만, 현재 제주는 관광지 외에는 국제화 정도가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지자체정부의 국제교류 성과를 살펴보면, 중국과의 교류는 상당히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는 중국 해남성과 자매 결연을 맺고 있고, 타이베이시, 대련시와는 교류증진 협정서를 조인했다. 그리고 제주시는 중국 광서성 제림시와 우호협력관계를, 서귀포시는 해남성 삼아시, 산둥성 용구시와 자매 결연 또는 우호협력관계를 각각 체결했으며, 남제주군은 요녕성 흥성시와, 북제주군은 산둥성 내주시와 각각 자매 결연을 맺고 있다. 그 외 라이온스와 JC, 로터리클럽 등 민간단체들도 중국, 대만 등지의 단체들과 교류를 진행중이다.

그러나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교류는 형식에 머물러 있을 뿐, 양측의

경제, 무역, 통상분야에 있어서 어떠한 공헌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¹⁰⁾

제주에 대한 외국인 투자액을 보면, 1996년 19건으로 2억3천만 달러에 달하던 것이 2000년에는 42건으로 늘고, 총 14억 6천만 달러로 6배나 증가했다. 그러나, 이는 한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총액 중 겨우 2.8%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여전히 낮은 편이다. 또한 투자 업종별로 볼 때, 요식업, 숙박업, 오락 시설 등이 99.9%를 차지해 보통 외국인의 투자분야가 제조업에 집중되는 것과 대조를 보인다.¹¹⁾

투자금액을 보면, 북미 지역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일본이면, 홍콩, 대만을 포함한 중화경제권이 근소한 차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종합계획”의 평가보고서에서는 제주가 직접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데는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반드시 중앙 정부와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고 그래야만 외국인 투자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2.3.2. 관광업계의 능력부족

외국인 관광객 유치문제에 있어, 현재 제주도내 여행업계는 규모가 작아 독자적으로 시장을 개척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타지역 여행사에 의존해서 고객을 모집하고 있다. 또한, 일부 특급호텔 이외에 보통 관광호텔은 외국인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외국어 가능자가 부족한 실태로 서비스의 품질을 저하시키고 있다.

사실, 제주도내의 관광관련분야 학과를 졸업한 학생 수는 2400명에 달한다. 그러나 대부분 훈련이 부족하여 바로 취업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적절한 능력을 갖춘 호텔경영자나 통역안내원이 매우 부족하고, 특히 중국어 통역자가 모자라 대부분 화교들이 이를 충당하고 있다.

3. 국제화 방안 및 관련문제

3.1.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국제화방안

앞서 예기한 문제들에 관해 ‘종합계획’에서는 국제화수준의 부족에서 발생

한 문제로 보고 몇 가지 대책방안을 내놓았다.

행정시스템 측면에서는 (1) 조직정비 및 시설확충; (2) 국제교류 관련 전문인재 육성; (3) 종합 행정정보 시스템 구축; (4) 국제화기금 설립하여 재원 확충 등 방안을 제시하였다.¹²⁾

또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인원, 상품,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해서도 아래와 같은 방안을 내놓았다.

(1) 투자 장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조례(제42조)를 제정하고, 또 '외국인 투자 촉진법'을 수정하여 일정 기간 내에서는 각종 세금을 감면해 주는 등 우대정책을 실시한다. 제주를 "역외금융센터(offshore financial center)"로 육성하여 외국은행과 증권업체의 거점설치를 유치한다.

(2) 제주를 "선박등록특구"로 지정, 외국선반이 와서 등록하도록 유치하고, 외국선원을 확대 채용함으로써 제주의 물류를 촉진하다.

(3) 입국비자 제한을 완화시켜 인적 교류를 촉진하다.

제주도 행정당국의 자체 촉진방안은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1) 도민 의식의 국제화: 국제화 교육을 통해 도민 의식을 국제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국제시민으로서의 의식을 배양한다.

(2) 지자체정부 서비스의 국제화: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해 각 행정기관은 외국어에 능통한 직원을 배치하고, 전문기구를 설치하여 외국인의 거주, 교육, 의료·보건 등의 문제를 해결한다. 아울러 외국어로 된 지역신문을 발행하여 필요한 소식을 알리고, 제주를 방문하거나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위해 최대의 편의를 제공한다. 그 구체적인 시책을 보면, 공공시설, 교통수단, 도로 등에 모두 외국어 표기를 첨가하고, 음식점과 식당에 외국어 메뉴판을 배치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3) 많은 외국인 전문가들이 제주에 거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국인을 위한 생활공간을 조성해 주어야 하고, 쾌적, 편리, 풍부, 안전 등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 학교를 설립하여, 외국인 자녀의 교육문제를 해결해야 한다.¹³⁾

3.2. 비자문제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전 세계 190개 국가 중, 한국은 30개국을 제외한 국가의 국민이 관광목적으로 입국할 때 모두 무비자 혜택을 주고 있다. 그리고 이 30개국 중 13개 국가의 국민들에게 제주도를 방문할 때 무비자 혜택을 주고 있다. 이 13개국은 중국, 러시아 그리고 기타 구소련 국가들이 포함된다. 그 중 중국인의 무비자 체류 기간은 15일이고 다른 나라 국민은 30일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서는 외국인의 제주 체류기간을 별도로 규정할 수 있으며, '출입국관리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4조) 그러나, 또 다른 조항에서는 "이미 입국한 외국인이 다른 지방으로 이동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15-19조)

'종합계획'에서는 중국인의 무비자 체류기간을 30일로 연장해 주고, 입국 대상을 제주도 또는 제주관광협회가 초청하는 5인 이상의 단체관광객, 제주도지사 초청하는 국제회의, 국제행사참가자 또는 제주에 입주한 외국인의 가족까지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¹⁴⁾

통계에 따르면, 실제로 제주에 오는 중국관광객들의 평균 체류기간은 보통 1-2일이다. 그러므로 체류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하는 것은 현재 상황으로 볼 때 별로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무비자 입국 대상에 대해 위와 같은 제한을 둔다면 무비자 입국시 필요한 조건을 오히려 더욱 복잡하게 만들어 이런 특혜가 과연 인적 교류를 촉진하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제주가 국제도시로 발전하려면, 관광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많은 외국전문 인력이 상주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관해 '종합계획'에서는 외국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필요시에 외국어교육, 정보과학기술, 생명공학, 관광업, 금융서비스업 방면의 외국전문가들의 체류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필요시에는 계속 연장해 주어야 한다고 건의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외국인을 고용, 초빙하는 과정은 여전히 복잡하고 심사 조건이 까다로운 편이라는 의견이 많다. 이는 제주도의 국제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점이다.

그 외에 제주도를 국제적 실버타운으로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비자심사제도

를 개선하여 장기 휴양, 요양을 원하는 사람들의 체류기간을 연장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4.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중국어 서비스 및 교육에 대한 검토

4.1. 중국어 가이드(통역안내원) 문제

《종합계획》에서 여러 차례 제주도민의 외국어 구사능력 부족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데, 중국어 역시 마찬가지다. 또한, 중국어 가이드가 부족해 화교들이 이를 충당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¹⁵⁾

현재 제주 지역에는 6개의 대학이 있고, 그 중 5개 대학에 중국어 관련학과가 있다. 또 7개의 고등학교에 중국어 과정을 개설하고 있어, 중국어 교육이 잘 보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어 관련학과 졸업생들은 마땅한 일자리를 찾기 힘들다. 이것은 주로 제주에는 이들을 수용할 만한 중국관련 산업이나 무역업이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매우 거대한 취업시장으로 여겨지고 있는 관광가이드도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대부분의 중국인 관광객은 제주에만 머물지 않고 경유하기 때문에 가이드가 육지에서 함께 내려오는 경우가 많다. 둘째, 중국관광객수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매년 배출되는 중국어 관련학과 졸업생 수는 그 수요에 비해 훨씬 더 많은 편이라서 여전히 공급과잉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앞에서 언급했던 가이드의 자질 문제에 관해서, 현재 정부의 가이드 관리제도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가이드 자격시험은 한국관광공사가 책임을 맡고 있고, 예전에는 서울에서만 시험을 치렀기 때문에 제주도민은 서울로 시험을 치러 가야했다. 하지만, 제주지역의 관광산업이 날로 발전하고 지방수험생들이 서울에 가서 시험을 보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999년부터 제주에서도 시험을 치르게 되었다. 정부는 중국 관광객이 갈수록 증가할 것을 감안하여 매년 제주에서만 20-30명의 가이드를 선발하고 있다.

문제는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자격증 발급만 할 뿐 취업을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가이드 자격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스스로 일을 찾아야한다는 것이다. 반

수급 알선이 필요하다.

관광공사는 가이드의 추가 연수, 훈련도 책임지지 않는다. 관광공사에서는 가이드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면 이미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여기고 있는 듯 하다. 많은 사람들이 관광가이드는 고도의 전문 지식이 필요치 않고 말만 몇 마디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 가이드라는 직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많은 외국인 관광객의 한국에 대한 인식은 가이드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므로 가장 중요한 민간 외교관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가이드 자격 시험을 맡은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매년 시험 응시자중 가이드라는 중임을 맡을 만한 능력을 충분히 갖춘 사람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므로 만약 중국어 가이드 부족문제를 해결하려면 학교교육 이외에 더욱 중요한 것은 정부가 인력의 공급과 수요를 연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우선적으로 현재 가이드 자격시험의 제도상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하며, 아울러 관광가이드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하여 가이드들이 일정한 능력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4.2. 외국어 행정 서비스의 문제

《특별법》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외국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주도는 외국어로 된 공문서의 접수, 처리 등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제20조)

현재의 계획안에는 영문서비스만 언급하고 있고, 기타언어 서비스 제공은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만약 영문공문서 서비스가 정말로 실시된다면, 외국어 서비스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크게 바뀔 것이라고 예상된다.

지금 국제교류가 아직 덜 활성화 돼있지만 외국어로 편지, 공문을 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각 회사나 공공기관에서는 이런 업무를 처리하는 전문적인 부서가 없어서 보통 외국어를 할 줄 아는 주변사람에게 부탁한다. 그러나 수량이 많지 않거나 인간관계에 제한을 받아 제공한 외국어 서비스에 대한 정상적인 보상을 받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앞으로 정부 부서에서 외국어 서비스가 많아진다면, 외국어 서비스의 수요·공급에도 “시장”

4.3. 외국어교육의 문제

만약 위에서 얘기한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먼저 대량의 외국어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한국의 외국어교육 열기는 이미 대단히 높은 것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몇 가지 규정을 더 제정하여 외국어 능력을 더욱 더 향상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면:

(1) 제주도는 도민의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책을 제정·실시해야 하며, 국가는 필요한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제20조)

(2) 외국인 학교를 설립할 경우, 내국인이 외국인학교 입학시 특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제21,22조)

(3) 제주도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교사를 채용할 때, 《중등교육법》《교육공무원법》등의 제한을 받지 않고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다.(제23조)

2002년 제주도의 7개 고등학교에는 중국어 교과과정이 개설되어 있지만, 단 한명의 중국어 선생이 각 학교를 돌아가면서 강의를 하고 있다. 이런 특별 조례가 시행된다면, 외국인 교사 초빙이 훨씬 쉬워지고 학생들의 중국어 능력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5. 결 론

제주가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하려면 당연히 영어실력 향상을 제일 급선무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중국이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경제적으로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어 인재도 절실히 필요하다. 지금 제주는 이미 많은 우수한 학생들이 중국어를 배우고 있다. 정부와 학교는 이런 인재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가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

중국 경제의 급성장에 따라 향후 한국과 중국의 교역은 농산품, 저가 공산품에서 보다 광범위한 무역, 투자 활동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추진 과정에서 중국기업의 투자와 중국인 전문인력의 장기체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중국어에 능통한 인재를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인 도로 등 시설의 한자 표기 문제, 안내 책자 문제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종합하여 정확하고 통일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통과시킨 후 잇따라 인천 송도, 부산 진해, 광양만 등 전국각지에 새로 경제자유지역을 지정하였다. 이것은 제주국제자유도시발전에 대한 막대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가 먼저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지역보다 먼저 여러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중 특히 모든 국제화의 기초인 외국어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김중섭

제주시 제주대학로 66

제주대학교 통역대학원 한증과

전자우편: kimjoongsub@hanmail.net

접수일자: 2004년 9월 10일

게재결정: 2004년 9월 17일